

보도시점 2023. 6. 6.(화) 11:00
6. 7.(수) 조간

배포 2023. 6. 5.(월) 16:00

채종단지관리 선진화로 식량안보 기틀 다진다!

- 청년농·전문농업법인 중심 단지 운영 및 종자생산 이력관리 추진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벼·밀·콩 등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농업인 고령화, 집단화된 우량 농지 감소 및 기상재해 상시화 등 악화되는 종자생산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보급중 채종단지 운영개선 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채종단지의 안정적 확보와 합리적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우량종자 생산에 주안점을 두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정부의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에 따른 밀·콩 등 종자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채종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청년 농업인의 채종참여 촉진* 및 전문농업법인·우수 채종농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강화한다.

* 신규 채종단지 선정 시 청년농업인 포함되는 경우 5% 가산

둘째, 종자생산단계별 혼종예방 등 핵심 관리사항에 대한 이력관리와 생육 상황 DB화 추진 등 과학적 생산체계를 강화하여 우량종자 생산성을 높인다.

* 종자 파종에서 수확까지 생산단계별 핵심요소와 주기적인 생육정보(영상 및 측정 자료) DB화 등 자료(data)에 기반한 생산관리 추진

셋째, 우수 채종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리부실 단지는 3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우량종자 생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 매년 단지평가를 통해 우수단지에는 면적확대, 품종선택권 부여 및 포상을 실시하고 부실단지는 1차 경고 → 2차 농가배제 → 3차 단지배제

* 생산관리가 미흡한 단지에 대해서는 미흡 사유별 맞춤형 지도

방문진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은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주요 식량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요작물의 식량 수급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보급중 생산·공급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보급중 채종단지 관리 개선방안 주요내용

담당 부서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책임자	과 장	방문진 (054-912-0180)
		담당자	사무관	서지원 (054-912-0185)



1. 현황 및 문제점

□ (검토배경) 농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채종단지 운영 방법 개선 필요

□ (단지현황) 주요 식량작물에 대하여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중이며, 최근 감소 추세, 갱신(신규 또는 제외)되는 채종단지수는 5% 수준(벼 기준)

* 보급종 채종단지 변화율: ('01) 3작물 125개 → ('10) 3작물 300 → ('20) 6작물 270 → ('22) 6작물 269

** 벼 채종단지 연도별 갱신율: ('20) 3%[4(신규1, 탈락3)/144] → ('21) 7%[11(신규7, 탈락4)/147] → ('22) 6%[9(신규4, 탈락5)/146]

□ 문제점

○ (단지운영) 채종단지의 파편화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채종농가와 소통미흡으로 우량 단지 확보 및 운영 애로

* '22년 벼 보급종 채종농가 연령별 비율: 40세 미만(1.39%), 40~59(17.5), 60~69(31.1), 70~79(31.1), 80세 이상(15.6)

❖ 작물별 채종단지 적정면적 이하 발생, 우량농지 감소 및 신규단지 확보 애로 등으로 활력있는 단지 유지 및 식량시책에 따른 탄력적 운영 어려움

○ (생산관리) 생산관리 지도에도 불구하고 매년 혼종, 종자검사 불합격 발생하고 효과적인 채종포 관리 및 선진화된 생산관리 미흡

❖ 생산단계별 이력관리 미흡, 관능 중심 채종포 관리로 단지 생육지도를 위한 객관적 자료 미흡 및 농가 포장관리 인식 부족

○ (단지평가) 지원단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국단위 평가가 부재하고 평가 내용과 피드백이 제한적

❖ 생산과정 노력 및 정책호응도에 등의 평가배점 비중이 작고 평가결과에 따른 부실 채종단지 처리 및 우수단지 홍보 등을 위한 평가결과 환류 미흡

2. 개선방안

단지 운영

◇ 단지 활력유지, 신규단지 적극발굴 등을 통해 종자품질 확보 및 채종수요 대응

◇ 공정하고 효율적인 채종단지 운영을 통해 채종현장과 협력강화

□ (기존 단지) 합리적인 단지평가, 단지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단지 활력 유지

- 전문 농업법인, 책임감 있는 농가 등을 중심으로 채종포장 확대
- 지역별·품목별 채종단지 기본 정보제공 등으로 단지의 지나친 고령화 등을 예방

□ (신규 단지) 청년농 우대 등 단지 선정기준 조정을 통해 신규 단지 적극 발굴

- 신규단지 채종농가에 청년농업인(40세 미만) 포함 시 5% 가산

□ 채종단지선정협의체 운영개선을 통해 채종현장과 협력강화

생산 관리

◇ 생산단계별 핵심요소 중점관리 및 채종방식 개선으로 고품질 종자 생산

◇ 과학적 생육지도 강화를 통한 업무 선진화 및 포장관리 인식 제고

□ 생산단계별 핵심요소 중점관리 및 채종방식 개선으로 고품질 종자 생산

- 종자 파종에서 수확·건조·보관 등 생산단계별 중점 이력관리
- 형태적 특성이 유사한 품종은 통합채종 및 지원별 생산품종 축소

□ 과학적 생육지도 강화를 통한 업무 선진화 및 포장관리 인식 제고

- 단지별 주요 생육정보 DB 추진 및 단지평가의 객관적 자료 활용
- 영농일지 작성 의무화를 통해 과비 방지 및 단지평가 반영

단지 평가

◇ 종합평가 내실화로 우량종자 생산 및 단지활력 유도

◇ 종합평가 환류 체계 구축으로 단지별 맞춤형 지도·점검

□ 종합평가 내실화로 우량종자 생산 및 단지활력 유도

- 우수 채종단지 인센티브(표창 등) 부여 및 관리부실 단지 페널티 적용
- 중복적 평가요소는 통합, 정책참여 및 생산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 비중 확대
- * 단지 집단화 객관적 기준 마련으로 단지평가 수치화 및 집단화 유지 유도

□ 종합평가 환류 체계 구축으로 단지별 맞춤형 지도·점검

- 종자소독 및 육묘관리 등 미흡한 단지에 대해 생산관리 지도 강화